



남원경찰서, 어린이가 안전한 등굣길 교통문화 조성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13일 교통초 앞에서 남원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원경찰서장, 교통관리계(자치경찰),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학부모회,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 초등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규정 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과 최근 단속이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교육하면서 홍보용 불펜을 배부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등을 협의했다. 한편 김진형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합동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입의 조작성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반으로 관명될 경우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스토킹 범죄 대응력 강화 FTX 훈련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13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여청수사, 형사, 112치안종합상황실, 지역경찰 등이 참여하는 다기능 합동 FTX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자치경찰사무)를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스마트위치' 활용 위치 추적으로 범죄 발생 장소 신속 파악 및 도주로 차단을 통해 피해자 안전 구조와 신속한 범인 검거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차량으로 납치된 피해자의 스마트위치 신고를 기반해 GPS 값을 신속히 분석하고 주변 순찰 차량을 긴급 배치하여 수색에 주력하고, 여청과장 등 현장책임자 중심의 총력 대응훈련도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미국 샌디에고 한인회, 문화 교류 협력

황인홍 군수-백항기 회장,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 성지 무주 샌디에고 홍보 상호발전 기대

무주군과 미국 샌디에고 한인회와 문화교류의 길이 트였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와 샌디에고 한인회 백항기 회장은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문화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한인회가 주최하는 문화사업 행사에 태권도, 고전무용, K-P시범단 파견 등 협력 지원, 태권마을 및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협력 지원, 기타 문화·홍보교류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샌디에고 한인회와 문화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되어 무척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 무주를 샌디에고에 홍보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샌디에고 한인회 백항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태권도 등 문화교류 협력에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원한다"며 "태권도인으로서 무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USA 태권도센터 대표 관장을 맡고 있는 백항기 회장은 태권도를 미주류 사회에 보급 역할과 함께 오션사이드시가 매년 6월 첫째주 토요일을 태권도의날로 지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4년 무주 태권도인 개인식에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0인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IBK기업은행 후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지난 13일 무주관내 장애인에 대상으로 국립공원 생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자발적 기업 후원금을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립공원의 생태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IBK 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진행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3월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에게 구천동어사길, 함적봉 아고산대 생태체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셔틀버스로 이동하면서 구천동계곡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이상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국립공원 생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공공성 강화 등 가치 인식에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공직자 119안전체험 실시

진안군은 공직자의 재난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4일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군청 공직자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위기탈출 체

험과 재난종합체험으로 진행됐다. 화재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태풍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완강기, 수직 구조대, 경사 하강식 구조대 교육 등 낯이 증가하는 각종 재해를 초기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위주 교육들로 채워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서, '문화가 있는 사진 전시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지난 14일 무주사진가협회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사진 전시회'를 경찰서 본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경찰관 사이에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정서함양과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약 2개월 동안 경찰서 본관 내부에 사진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유봉현 무주경찰서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고, 무주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공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도움을 준 무주사진가협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바르게살기운동김제시협의회, 영호남 친선 교류 참가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회장 이권재)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21회 바르게살기 운동 국민화합 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영호남 친선 교류회를 가졌다. 김제시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라북도도와 자매협의회 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협의회와 행동강령 낭독, 대회 경과 보고, 유공회원 표창 등을 실시하며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본 이념을 되새겼다. 아울러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로 격의 없는 우정을 나누며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자매 협의회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권재 김제시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영호남이 화합하는 분위기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상호관계를 이어나가 영호남 우애를 다지는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경찰서, 전화금융사기 근절 위한 간담회 가져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지난 13일 관내 13개소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찰-금융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하고, 관내 전화금융사기 발생현황과 112신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112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시 신속한 112신고로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경찰-금융기관 실시간 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해 관내 피해사례 공유 및 예방문자 발송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